

기획

민선 5기에 바란다

여성정책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황정아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표 =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보다는 중앙 정부의 위임 업무에 치중해왔다. 공약인 여성재단 설립, 여성가족국 신설을 비롯 행정과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바란다.

지역 문화 살리는 지원책 절실



◇송광룡 시인 '문학들' 발행인 = 2003~2007년 광주의 서점은 197개에서 116개로 줄었다. 먹고만 사는 문화에는 책이 깔 자리가 없다. 문화의 기초를 살리면 환전 가치를 저절로 따라온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해야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광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험이다.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활동보조서비스 등 과제가 많다. 등록장애인은 주민의 6%인데, 복지예산은 2%에 불과하다. 최소 4%대로 확대해야 한다.

야구 인프라 구축에 관심



◇김주일 KIA 응원단장 = 호남인들에게 야구는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특별한 스포츠다. V10 환호의 역사 뒤에는 광주 시민들이 있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즐겁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 바란다.

축구 전용구장도 필요할 때



◇강현석 강내과 원장 = 아마추어 작가로 상무 선수들의 사정을 맡아 여러 구장을 다니고 있다. 축제처럼 축구를 즐기는 타지역 시민들을 보면 아쉬움이 든다. 축구가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전용구장 건립 방안도 함께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비위공직자 용납 못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 만들 것”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강운태 광주시장

관선 광주시장을 역임한 뒤 6·2지방선거를 통해 15년 만에 시정으로 복귀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1일 취임식이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시장의 모든 철학과 가치기준을 '시민의 행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동구장과 관광레저복합타운,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방식 도입 등 대형 현안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고 공기업 통폐합과 조직개편 및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술·문화를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따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광주도 이제 일어설 때가 됐으며, 말만 빛고음이 아닌 진정 빛나는 도시를 만들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 -모든 시정의 가치를 시민의 행복에 두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 ▲시민이 행복해지는 일을 하고, 시민이 불행해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질의 꾸러기바에서도 철도 없이 버스만으로 도시 내 교통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다.(광주시는 도로 중앙에 설치한 지상고가에 가벼운 전동차를 다니게 하는 방식으로 42.5km 거리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건립계획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새 야구장 건설,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 등 민선3·4기에 추진돼 온 대형 사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철도·새 야구장 건설 등 재검토 영산강 개발보다는 '수질개선 먼저' 산하기관, 경영진단 후 통폐합 결정

-15년 만에 시장으로 복귀했는데, 심경은. ▲1995년 6월 30일, 9개월간의 관선 광주시장 임기를 마치고 계림동 시청사를 떠난 것이 벌써 15년 전이다. 당시에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시민의 부름을 받은 민선시장으로서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 오늘 오전 취임식을 앞두고 5·18민주묘역에 둘러 5월 영령들께 '광주를 행복한 창조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뛰겠다. -오전 취임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부정적인 노래가 아니다. 가사도 살펴보고, 많이 불러도 보고 하니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광주의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는데 걸맞은 노래여서 부르도록 했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면서도 그 이미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민선 5기 시장구호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로 정한 이유는. ▲광주를 모든 것의 모범·모델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의 음식·기

에도, 시민들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시내버스를 늘려 전동차장이나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에 배차하는 것을 더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당선 이후 수차례 이야기해 왔지만, 도로에 4000여 개의 기둥을 설치하는 지상고가 방식은 광주의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다. 2호선을 만들더라도 도시철도의 전체 수송분담률이 10%도 안 되는데, 여기에 1호선을 포함해 모두 3~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적 생태도시인 브라

▲시민과 소통 없이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자는 것이다. 신설되는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수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수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시설을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체계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



통령에게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도 '선(先) 영산강 수질개선, 후(後) 영산강 개발' 입장을 지켜 나가겠다. -그동안의 광주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울곡 이이의 말을 인용하자면, 지금은 창업(創業)·수성(守成)·경장(更張) 중 경장에 해당되는 시점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과거

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의 평가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선 호남인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점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과는 광산구 광동 포사격장 부지 제공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와 군의 관계를 애증이 얽힌 관계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에서 광주를 위해 땅을 내놔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서로 검토해보기로 했다. 앞으로 이 같은 자세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기준은. ▲통폐합은 법과 원칙,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할 것이다. 과거 인사를 존중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영진단을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겠지만, 현재는 산하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도 있고, 시정에 부담되는 조직도 많이 있다. 크게 긴장할 일은 없겠지만, 변화가 생기더라도 광주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슬렁이고 있다.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일단 조직개편은 현재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인사의 원칙도 간단하다. 모든 공직자를 받고, 먼저 기회를 준 뒤 결과를 사심 없이 투명하게 평가하겠다. 하지만, 민원처리에는 농장을 부러거나, 시민에게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 특히 금품수수나 비리가 있는 공무원엔 철저히 공직에서 배제하겠다. 공직자들도 앞으로는 민원과 관련해 '노'가 아니라 항상 '예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일처리를 해주기 바란다. 개방형 채용이 다소 많아지지만, 공무원에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TEL)011-609-5221
토지매매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임대 : 60m 대로면 2,3층 450평(분할가능)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al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클리닉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 무료상담